



소리주보

[2854호] 2025년 1월 29일 **설**



사진 : 최경락 빅토리아노(월평성당·부산가톨릭사진가협회)

깨어 있음

매 순간 깨어 있음은 참된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며 사는지 자각하지 못하면 불행하게 됩니다. 깨어 있는 사람만이 제대로 살 수 있으며, 자기 분수를 헤아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깨어 있다는 사실은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대해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목표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 역시 '깨어 있어라'입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루카 12,35) 늘 준비하고 깨어 있는 삶의 자세는 그리스도 신앙인이 지녀야 하는 덕목입니다. 깨어 있음은 언제나 새로움을 줍니다. 깨어 있음의 중심에는 주님께서 계십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깨어 있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깨어 있지 못함에서 기인합니다. '깨어 있어라'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깨어 있는 이들이 살아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쉽게 악의 유혹에 빠집니다. 막연하게 잠을 안 자고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작은 일에도 충실히 살아갈 때 비로소 깨어

있지 않을까요?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매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루카 12,37-38) **깨어 기다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현실이 얼마나 기쁘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 있음의 행복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왜 깨어 있는 삶이 필요한지 제2독서 야고보 서간에서 뚜렷이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야고 4,14)

올 한 해 하느님의 은총과 진리로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박근범 레오 신부
도시빈민사목 담당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소년소녀합창단 단원 4기 모집

- 자격** 초등학교 3학년(2025년 첫 영성체 예정자) ~중학교 2학년의 세례받은 가톨릭 신자 누구나
- 서류** 입단지원서(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세례증명서, 증명사진 1매(입단지원서에 첨부)
- 접수** 이메일(bscpbc@outlook.com)
우편(48968 부산시 중구 중구로 71 부산가톨릭평화방송)
- 마감** 3월 4일(화) 까지 (서류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 오디션** 3월 8일(토) 13:00 가톨릭센터 5층
- 문의** 600-8800,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이 겨울의 시간

조용히 강의실에 들어오는 그를 보았다. 전동휠체어를 미끄러지듯 밀고 들어와 맨 앞줄에 착석했다. 팔십이 넘은 연세에도 눈빛만은 빛났으나 고개를 들지 않았다. 매년 원고를 제출했으나 원고 분량이 길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섬광처럼 떠오르는 생각의 파편들이 백지에 툭툭 떨어져 도로 위에 나뒹구는 낙엽처럼 부스러지고 있었다. 그 원고들을 첨삭할 때면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러니 다른 수강생들은 첨삭시간을 갉아먹는 노인에게 보내는 시선이 따라왔고, 노인의 눈은 나를 아프게 했다.

노인은 태어나면서 다리를 못 썼다.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그는 구두땀이가 되었다. 구두가 어설피게 땀이면 어른들 중에는 화를 내거나 구두통을 걷어차기도 했고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 초등학교에 가는 동네 아이들이 부러워 밤이면 방 벽에 붙은 신문으로 글자를 터득했고, 교과서를 구하여 밤에 공부했다. 중고등학교 공부도 그렇게 했다. 그러던 중 이웃에 사는 신사 한 분이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저녁을 먹고는 아들 과외교사를 제의했다. 그는 놀랐지만, 그의 영특함을 알아본 노신사는 그를 설득해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게 했다. 그 신사는 당시 법조인이었다.

그 덕분에 다리가 불편했지만 살림에 보탬을 줄 수 있었고, 자존감을 살려 주었고, 신사의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 스스로도 공부를 열심히 했다. 후에 그 아들은 의과대학에 들어갔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여 유학을 떠나기 며칠 전 아들은 새색시를 데리고 찾아와 큰절을 올렸다.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었다.

노인의 원고를 읽으며 카오스 같은 세상에도 이런 법조인이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한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맑고 따듯했다. 내로라하는 대학의 학생 중에서 뛰어난 과외교사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가장 낮은 자리에 불편한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귀한 아들의 과외교사로 들었던 것이다. 그분의 아들은 학창시절 한 번도 사춘기적 반항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법조인은 어차피 공부는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므로 아들에게 인생을 가르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몇 학기째 수강하고 있는 노인을 이제는 그 누구도 빼죽거리고 비난의 눈길을 보내지 않는다. 어릴 적 나비가 유일한 친구라고 했던 노인의 글에 왈칵 눈물을 쏟으면서도 담담함 속에 정다움을 묻으며 '깊음'이란 단어를 이해했다.

성탄을 지내고, 주님 공현 대축일과 주님 세례 축일을 차례로 보내며 겨울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차가운 지푸라기 위에 놓이신 아기 예수님께 미사 때마다 경배를 드린다. 한겨울 춥고 차가움을 물리치며 따스하게 다가오는 예수님의 사랑. 내 가슴 속 마당을 천천히 거닐어 본다.

윤미순 데레사
남천성당·수필가



설 2025년 1월 29일

입 당 송 마태 28,20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제 1 독 서 민수기 6,22-27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화 답 송 시편 90(89),2와 4.5-6.12-13.14와 16(◎ 17ㄱ)

◎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 산들이 솟기 전에, 땅이며 누리가 생기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시옵니다.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3.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4.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

제 2 독 서 야고보서 4,13-15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복 음 환 호 송 시편 145(144),2

◎ 알렐루야.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 나이다. ◎

복 음 루카 12,35-40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영 성 체 송 히브 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또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2025학년도 부산가톨릭신학원 신입생 모집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루카 24,32)

세상은 신학이 삶과 무관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신학은 살아온 삶의 두루마리를 펼쳐

사랑과 희망을 주입시킵니다.

삶의 사막화를 막아주는 마음의 보호대가 되어

삶의 길을 밝히는 지리학으로 작용합니다.

수도자와 평신도의 신학교육을 위해서 마련된

은총의 기슭, 부산가톨릭신학원이 교수님들께

맛나고 즐거운 날을 살아가도록 돕겠습니다.

부디 좋고 복된 학문의 터에 함께하시어

화창한 삶으로 단장하시길 청하며,

모두를 초대합니다.

모 집 정규과정 : 2년(4학기)-학기당 12주간

▷주간 : 주 3일 수업 (화 12:10-16:30 / 수,목 13:40-16:30)

▷야간 : 주 3일 수업(화,수,목 19:00-21:10)

자 격 세례받은 지 2년 이상이 되는 고졸 학력 이상의 평신도 및 수도자

접 수 1월 15일(수)~2월 14일(금) * 전형료 3만원

▷우편(등기) 혹은 방문 접수(월-금 10:00-16: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원서교부 : 홈페이지(<https://sinhak.cup.ac.kr>)의 <신입생모집>에서 다운

▷서류 : 입학원서, 세례증명서 1통, 교적사본 1통, 반명함판 증명사진 3매

※ 정규과정을 이수한 졸업자는 교구장 이름의 선교사(주간), 교리교사(야간) 자격증이 부여됩니다.



부산가톨릭신학원

문의 : 교무실 051)519-0480, 팩스 051)519-0477

부산시 금정구 기차로 102번길 56-7(부곡동) 허인백야고보관 2층